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y Recommended Book Lists for Teens and the Way to Improve

박 미 진 (Mijin Park)**

초 록

도서관의 도서 추천은 막연한 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의 도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고 적합한 도서를 추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서관 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도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록에는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주체의 의도가 반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이 도서관 이외 기관에서 발간하는 추천도서 목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기관에서 도서 추천의 주요 타겟층으로 삼는 '청소년'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①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② 추천된 도서의 특징, ③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의 측면에서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이 갖는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Book recommendations in libraries can be used as a tool to help users with vague needs browse and select books. Therefore, libraries spend a lot of time and effort to introduce various materials to their users and recommend suitable books. Meanwhile, various organizations other than libraries also publish recommended reading lists, and these lists reflect the intentions of the entity that selects the recommended 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out how the recommended book lists of libraries differ from the recommended reading lists of non-library organizations. To achieve this, the study limited the scope to 'teenagers', who are the main target audience for book recommendations in many organizations, and compared the recommended book lists of libraries and non-library organizations in terms of (1) the selection criteria for recommended books, (2) the characteristics of recommended books, and (3) the way of providing recommended book list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library recommended book lists and discussed areas for improvement.

키워드: 공공도서관, 추천도서목록, 사서추천도서, 도서추천, 청소년추천도서

Public Library, Book List, Recommended Book, Librarian Recommendation, Teen's Book List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3.02)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qaw09@pusan.ac.kr)

논문접수일자 : 2023년 11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12월 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4): 101-124,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4.101>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도서관은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할 의무를 지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독자들에게 좋은 도서를 추천하고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이에 도서관은 읽을거리를 찾는 독자들에게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하는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의 도서 선택에 편의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유익한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로 독서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이용자를 도서관 장서로 이끌기 위한 독서자료안내(reading guidance) 서비스이다(남영준, 2021; Monroe, 1971). 따라서 도서 추천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읽을거리를 찾는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목록과 추천도서 목록이라는 두 가지 탐색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목록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서비스라면, 추천도서 목록은 막연한 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의 도서 탐색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사서와 이용자 간의 독자상담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를 위한 도서를 추천해 왔다. 오늘날에는 종전의 개별 이용자를 위한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정 주기에 따라 추천하는 도서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를 추적하여 추천도서 목록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도서관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독

자들의 읽을 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소년'만 하더라도 도서관, 출판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의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유형의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목록에는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주체의 의도적 개입이 반영되는데, 이를테면 청소년들을 '나쁜 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신간 도서를 홍보하기 위해서 등의 의도가 내재하는 것이다. 이에 추천도서 목록의 생산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서가 선별되며(김근호, 2011), 결국 추천도서 목록에서 배제된 도서에 대한 접근 기회를 앗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안찬수, 2005).

그렇다면 전통적인 도서관의 참고서비스로써 도서를 추천해 온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은 도서관 이외 기관에서 발간하는 추천도서 목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추천도서 목록의 주요 타겟으로 삼는 '청소년'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도서관', '혼합형', '도서관 외부'로 구분한 발간 주체별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도출된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과 한계를 정리하고, 도서관 이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에서 나타난 특징 중 어떤 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참고하여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서관 외부의 교육계, 출판

계, 민간단체 등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진행된 비교 연구이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도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김경옥, 2020; 이수상, 이태석, 주소현, 2022), 이 연구는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추천할 도서를 선정하고 목록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여 도서 추천 서비스의 전체적인 맥락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하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①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② 추천된 도서의 특징, ③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청소년 추천도서 목록의 등장과 발전 과정

청소년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은 1968년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불량도서 출판물의 단속책(동아일보, 1968)'으로써 간행되었던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우량도서'가 시초로 확인된다(정오현, 2012).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국민 독서생활화 계획'의 시행과 당시 문교부의 '학교 독서생활화 방안'의 수립에 따른 '학교별 권장도서'의 발표 등 정부 주도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독서문화에 관한 관심이 공론화되었다(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1984년 6월부터 대한

출판문화협회가 청소년들의 심성 계발, 건전한 가치관의 체득을 돕고 청소년용 우량도서의 출판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사업에 착수하였다(대한출판문화협회, 1987). 이후 1991년 7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도 사전 검열을 통해 나쁜 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좋은 책을 읽도록 유도한다는 윤리적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0). 이로써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소년 추천도서의 선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근호, 2011).

이처럼 국내의 청소년 추천도서 목록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 기관과 출판계에서 검열의 성격을 지닌 목록의 발간이 시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관 중심의 추천도서 목록은 학계를 주축으로 각 주제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취향과 흥미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천도서 목록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입을 책을 선택할 권리를 축소하며, 심지어 일부 책을 선택에서 배제해 버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최성일, 2003; 안찬수, 2005).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셌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주축이 된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이나 '어린이도서연구회'와 같은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 추천도서 목록은 사회단체와 교육계가 확산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 '도서관', '사회단체', '신문 및 방송기관', '서점' 등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되었다(김시내, 현은자, 2003; 김주희, 2018; 안인자, 2009; 이연옥, 2006; 이현진, 2015; 정오현, 2012).

도서관계에서 추천도서 목록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이 공론화된 시점은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09~2013)』에서 찾을 수 있다. 2006년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독서 생활화 정착을 위하여 ‘출판 분야별 상세 서지정보의 제공’, ‘분야별 우수도서 목록의 개발’, ‘독자 대상별 추천도서 목록의 개발 및 보급’을 상세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진 방안은 제2차 진흥계획에서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및 제3차 진흥계획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반복적으로 추천도서 목록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서 목록의 작성 및 보급’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확대 전략으로 ‘연령별/상황별 권장도서 목록의 개발 및 보급’을 제시하였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서는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진 과제로 ‘길 위의 인문학’, ‘One Book, One City’와 같은 다양한 독서운동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추천도서 목록의 제작, 배포,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거점 공간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도 이용자 정보 접근의 편의성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강화 전략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06년 개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이듬해부터 사서추천도서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2010년 1월부터 사서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후 일부 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 ‘사서추천도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2.2 선행연구 분석

추천도서 목록의 생산 주체가 다양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는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추천도서 목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기관 및 학교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분석하여 상호 비교한 연구(김근호, 2011; 김시내, 현은자, 2003; 안인자, 2009; 이연옥, 2006; 정오현, 2012), 도서관 대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도서의 이용을 분석한 연구(박정순, 2013; 조정연, 2021), 추천된 도서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이윤석, 202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대상으로 추천도서의 선정 과정(고다솜, 윤유라, 2022), 추천된 도서의 특징(김경옥, 2020; 이수상, 이태석, 주소현, 2022), 대출률(남영준, 2021), 서비스 현황(김민아, 2022; 이연옥, 2023) 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그중 공공도서관이 추천

하는 책의 특징을 분석한 김경옥(2020)은 주제 및 장르별 편향도와 타 기관 추천도서 목록과의 중복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남영준(2021)은 장서수집정책의 객관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사서추천도서 목록과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고 각각에 대한 이용자 대출률을 구하여 사서의 판단과 이용자 요구 간의 차이 또는 동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문학에 집중된 베스트셀러 목록과 달리 사서추천도서 목록은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교양 영역의 도서들을 다양하게 추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연옥(2023)은 독자상담 서비스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분석하였으며, 개선 방안으로 개별 독자를 위한 추천 서비스, 사서의 서평, 독자의 참여와 공유 및 상호작용 활동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추천도서 목록을 대상으로 추천도서의 선정과 이용 현황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추천도서 목록의 선정 기준, 선정된 도서, 목록 제공 방식 등에 대하여 추천도서 목록을 생산하는 기관별 특성이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에 대하여 도서관 이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과 비교하여 그 특성이나 차이를 분석하거나,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과정에서 추천도서 목록의 활용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에서 발간하는 추천도서 목록에 대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3.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추천도서 목록을 상호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② 추천된 도서의 특징, ③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의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였다.

3.1 분석 대상의 선정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추천도서 목록 발간기관은 다음 <표 1>과 같이 총 6곳이다.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발행기관을 '도서관'과 '도서관 외부'로 구분하였다. 또한 추천도서 목록의 발간 주체가 도서관은 아니지만 사서 또는 사서교사가 추천도서의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를 '혼합형'으로 명명하였다.

그중,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시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씩 선정하였다. 국가도서관에 해당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국어청)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산하 기관으로써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기에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전문도서관이나 특화도서관이 아닌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의 의도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단위도서관보다는 규모가 크고 대표성을 갖는 광역대표도서관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전국 17개의 광역대표도서관 중 지난 3년간의 추천도서 목록

〈표 1〉 분석 대상 추천도서 목록

발간 주체		발행기관명	추천도서 목록명
도서관	국가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공공도서관	A광역대표도서관	사서추천도서
혼합형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목록
도서관 외부	교육계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방학 추천도서 목록
	출판계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달의 청소년 선정도서
	민간단체	(사)행복한아침독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 계층에 ‘청소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A광역대표도서관을 선정하였다. A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16개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그 목록을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역의 광역대표도서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거나 통합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A광역대표도서관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도서관 이외 기관 중 ‘혼합형’은 사서, 사서교사, 교사 등의 주체가 함께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학교도서관저널’을 선정하였다. 이는 지역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시스템이 교육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도서관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학교도서관저널에는 신간도서 목

록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 2회 추천도서 목록을 부록으로 발간하고 있다.

청소년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는 대표적인 도서관 외부 단체로는 교육계, 출판계, 민간단체를 들 수 있다(김시내, 현은자, 2003; 김주희, 2018; 안인자, 2009; 이연옥, 2006; 정오현, 2012). 혼합형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기관 중 각각 한 곳을 선정하였다. 먼저, 교육계에 해당하는 단체로 선정한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이하 책따세)’은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추천도서 목록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단체이다. 출판계를 대표하는 단체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대출협)’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청소년 대상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그 목록을 보급한 최초의 단체이다(김근호, 2011).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사)행복한아침독서(이하 아침독서)’를 선정하였다.¹⁾ 이 단체에서는 국내에서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침독서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학

1) (사)행복한아침독서의 추천도서 선정위원회는 사서도 일부 참여하나, 사서가 핵심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서관 외부’로 구분하였다.

년별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²⁾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항목

다음으로,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혼합형, 도서관 외부)의 추천도서 목록을 상호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 기관별 담당자와의 개별 연락, 기관 홈페이지 및 발간 책자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추천도서 목록의 수집 범위는 지난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최근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 기관에서 추천한 도서는 중복을 제외하여 총 2,663건이었다. 기간별 추천도서의 현황은 <표 2>와 같다.³⁾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비교 항목은 ①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② 추천된 도서의 특징, ③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이다.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항목에서는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과정을 비교하였으며, 추천된 도서의 특징은 이수상, 이태석, 주소현(2022)과 이윤석(2021)

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서의 내용, 출판사의 유형, 자료의 최신성, 물리적 특징, 대상 독자층'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은 형식, 주기, 주제 구분, 제공 서지정보를 살펴보았다(<표 3> 참조).

4. 연구 결과

4.1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비교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을 기관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각 기관별 선정 기준을 수집하여 선정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선정 기준을 유사성에 따라 다시 범주화한 결과, '선정 대상', '자료에 대한 고려 요소', '이용자에 대한 고려 요소', '선정 제외 대상'으로 구분되었다. 추천도서 선정 기준을 기관(단체)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으며, 각 요소별로 선정 기

<표 2>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 내 수록 책 수

기관별	2020	2021	2022	합계	분석단위	합계	중복제외
국어청	12	12	14	38	도서관	613	473
A 광역	192	192	191	575			
저널	504	361	354	1,219	혼합형	1,219	1,219
책따세	68	74	64	206	외부	1,058	971
대출협	69	70	80	219			
아침독서	202	210	221	633			
합계	1,047	919	924	2,890	합계	2,890	2,663

- 아침독서운동은 아침자습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운동이다(행복한 아침독서, [발행년불명]).
-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에서 ISBN이 누락된 도서 중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시스템, 책바다에서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던 도서 1건(학교도서관저널 2020년 추천도서 목록 수록 『왜 동물원에 동물이 없을까?』)은 오류로 판명하여 제외하였다.

〈표 3〉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 비교 항목

비교 항목	분석 요소	분석 지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추천도서의 선정 주체
	선정 과정	추천도서의 선정 과정
추천도서의 특징	도서의 내용	추천도서의 KDC 주제분류기호
	출판사의 균형	추천도서 목록 내 출판사별 출현횟수
	자료의 최신성	추천도서의 출판연도
	물리적 특징	ISBN 부가기호 자료형태기호
	대상 독자층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목록 제공 방식	형식	추천도서 목록의 유형
	주기	추천도서 목록의 발간 주기
	주제 구분	추천도서 목록 내 주제 구분
	제공 서지정보	추천도서 목록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

〈표 4〉 기관별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도서관		혼합형	외부			
		국어청	A공공	저널	책따세	대출협	아침독서	
선정 기준	선정 대상	신착도서		신간도서	교사/학생 추천도서	신간 중 출판사 신청도서	신간 중 출판사 신청도서	
	자료	주제의 다양성 및 균형	O	O	O	O	O	O
		내용적 완성도	O	O	O	O	O	O
		저자의 권위, 균형	O	O	X	X	X	X
		출판사의 성격, 균형	O	O	X	O	O	X
		자료의 최신성	O	X	O	X	O	O
	형태적 완성도	O	X	O	O	X	O	
	이용자	흥미	O	O	O	O	O	X
		진로	X	O	O	X	X	X
		학습	X	O	O	X	O	X
		독서수준	O	O	O	O	O	O
	선정 제외 대상		O	X	X	X	O	X
	선정 주체		내부 위원회		외부 위원회	내부 위원회	외부 위원회	
선정 과정		3단계		2단계	5단계	2단계		

준 내 관련 어휘나 문구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O/X로 표기하였다.

비교 결과, 몇 가지 요소에서 도서관과 도서관 이의 기관 간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선정 대상에 대하여 도서관은 신착도서를 위주로 규정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주체별 신간도서, 추천도서, 출판사 신청도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료에 대한 고려 요소를 살펴본 결과, '내용적 완성도'와 '주제의 다양성 및 균형'은 모든 기관에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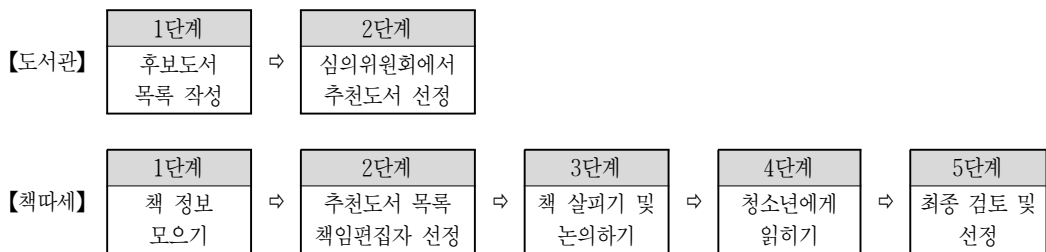
정 기준에 명시하고 있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도서관의 선정 기준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료에 대한 요소는 '저자의 권위, 균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자에 대한 고려 요소를 살펴본 결과, '독서수준은 모든 기관의 선정 기준에서 다루고 있었다. 청소년의 '흥미'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도 한 곳(행복한아침독서)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포함하고 있었다. 추천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가진 기관(단체)도 두 곳이 있었는데, 국어청에서는 '언어사전, 백과사전류, 학습참고서, 수험서', '어린이 및 청소년 유해 도서', '절판도서', '게임도서', '선정 3개월 이내 동일한 저자 및 발행처의 도서'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대출협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재단 등으로부터 선정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은 도서', '동 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도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어서 추천도서의 선정 주체를 비교해 보면, 도서관은 사서로 구성된 내부 추천도서 선정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었다. 반면 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각 주제별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사서를 포함하는 기관도 있었다. 도서관 이외 기관 중 책따세는 전·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에서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도서관의 추천도서 선정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종 선정된 추천도서의 목록을 작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추천도서 목록 담당자나 각 자료실의 담당자가 후보도서를 선정하고 사서추천도서 심의위원회에서 후보도서를 심의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 기관(단체)들도 '신청, 심의 및 확정'이나 '1차 심사, 2차 심사'와 같이 주로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정 과정이 가장 상세한 곳은 책따세였는데, <그림 1>과 같이 '책 정보 모으기', '추천도서 목록 책임편집자 선정', '책 살피기 및 논의하기', '청소년에게 읽히기', '최종 검토'의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2006). 이 기관은 추천도서의 선정 주기 내에 교사와 학생들이 추천한 도서를 대상으로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후보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 없으며, 선정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책을 직접 읽어보고 그 반응을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과반수 투표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선정한 도서만을 최종적으로 추천도서 목록에 수록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들과 차별되었다.



<그림 1> 도서관과 책따세의 추천도서 선정 과정 비교

4.2 추천된 도서의 특징 비교

4.2.1 도서의 내용

도서의 내용은 KDC 분류기호를 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각 기관별 추천도서의 KDC 분류기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에 없는 도서에 한하여 책바다 서지데이터에서 보완하였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가 가장 많이 추천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학 중에서는 ‘한국문학(66.25%)’과 ‘영미문학(17.12%)’, 사회과학 중에서는 ‘사회학(40.27%)’과 ‘경제학(21.48%)’ 순으로 많이 추천되었다. 각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에서 문학 분야의 추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자체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은 없었다. 기관의 유형 중 문학 분야의 추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도서관이었다(4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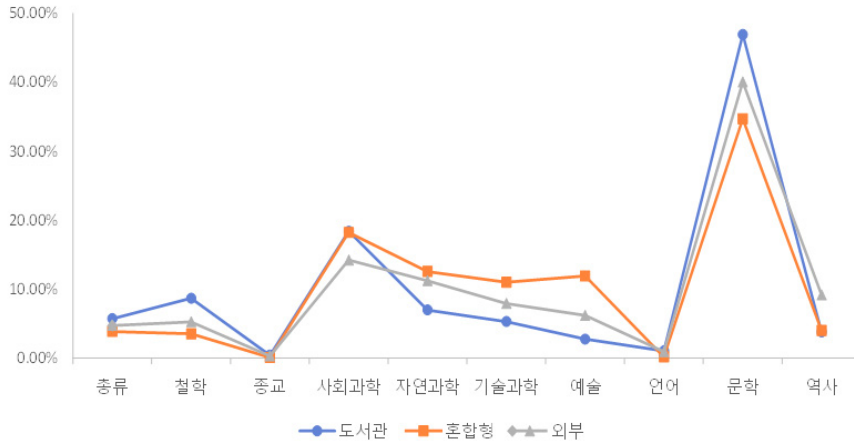
‘문학’과 ‘사회과학’을 제외한 주제 분야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림 2〉와 같이 도서관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분야의 도서가 많이 추천되었지만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에는 ‘철학(8.67%)’과 ‘총류(5.71%)’ 분야의 수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적게 추천된 분야는 ‘종교’, ‘언어’ 순으로 나타났다.

4.2.2 출판사의 균형

출판사의 균형은 추천도서 목록 내 출판사별 출현횟수를 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출판사별 출현횟수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각 도서의 출판사명을 통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적으로 동일 출판사명에 대하여 영문과 한글로 달리 표기된 것은 한글을 우선 적용하였다. 2차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의 출판사명 데이터와 대조하여 정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출판사 홈페이지

〈표 5〉 기관별 추천도서의 내용 분석 결과

	도서관		혼합형		외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총류	27	5.71%	47	3.86%	46	4.74%	120	4.51%
철학	41	8.67%	43	3.53%	51	5.25%	135	5.07%
종교	2	0.42%	1	0.08%	3	0.31%	6	0.23%
사회과학	87	18.39%	222	18.21%	138	14.21%	447	16.79%
자연과학	33	6.98%	153	12.55%	109	11.23%	295	11.08%
기술과학	25	5.29%	134	10.99%	77	7.93%	236	8.86%
예술	13	2.75%	145	11.89%	60	6.18%	218	8.19%
언어	5	1.06%	2	0.16%	9	0.93%	16	0.60%
문학	222	46.93%	423	34.70%	389	40.06%	1,034	38.83%
역사	18	3.81%	49	4.02%	89	9.17%	156	5.86%
계	473	100.00%	1,219	100.00%	971	100.00%	2,663	100.00%



〈그림 2〉 기관별 추천도서의 내용 비교

지를 통해 하위 브랜드를 수집하여 대표 출판사명을 적용하였는데, 가령 ‘창비’, ‘창비교육’, ‘미디어창비’의 경우 모두 ‘창비’로 통일하였다.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 내 출판사의 출현횟수는 다음 〈표 6〉과 같다. 기관별 수록 도서 수와 출판사 수 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출판사 1곳의 출현횟수가 가장 적은 곳은 도서관이었다(2.46건). 이는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이 다른 기관에 비해 더 다양한 출판사의 도서를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에서 출현빈도가 상위 10위인 출판사는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이 10곳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도서가 각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서관이 33.19%, 혼합형이 20.10%, 외부 기관이 18.33%이었다. 이중 모든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에서 출현한 출판사는 ‘창비’, ‘자음과모음’, ‘다른’, ‘우리 학교’, ‘문학동네’, ‘돌베개’, ‘사계절출판사’이다. 한편, ‘특별한서재’는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에서의 출현 빈도만 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다른 기관과 차이가 있었다. 반면, 다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에서는 출현 빈도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지만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못한 출판사는 ‘휴머니스트’, ‘푸른 숲’, ‘철수와영희’이다. 이중 청소년 도서 전문 출판사인 ‘철수와영희’의 경우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에서 그 출현 빈도가 15위로써 상위 10위

〈표 6〉 추천도서 목록 내 출판사별 출현횟수

	도서관	혼합형	외부
전체 도서수	473	1,219	971
출판사수	192	420	344
최고값	35	54	24
최저값	1	1	1
평균	2.46	2.90	2.82

〈표 7〉 기관별 최다 출현 출판사(상위 10)

	도서관			혼합형			외부		
	출판사명	빈도	비율	출판사명	빈도	비율	출판사명	빈도	비율
1	창비	35	7.40%	창비	54	4.43%	우리학교	24	2.47%
2	자음과모음	28	5.92%	자음과모음	33	2.71%	창비	23	2.37%
3	다른	15	3.17%	문학동네	25	2.05%	다른	19	1.96%
4	우리학교	15	3.17%	사계절출판사	22	1.80%	문학동네	18	1.85%
5	폴빛	13	2.75%	우리학교	22	1.80%	사계절출판사	18	1.85%
6	뜨인돌	12	2.54%	폴빛	20	1.64%	돌베개	16	1.65%
7	문학동네	12	2.54%	다른	19	1.56%	자음과모음	16	1.65%
8	특별한서재	10	2.11%	돌베개	19	1.56%	뜨인돌	15	1.54%
9	서해문집	9	1.90%	서해문집	16	1.31%	푸른숲	15	1.54%
10	돌베개, 사계절출판사	8	1.69%	휴머니스트	15	1.23%	철수와영희	14	1.44%

안에 들지는 못하였으나, 그 수록 비율은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 기관(1.4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폴빛’, ‘뜨인돌’과 같은 영세이거나 청소년 도서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한 도서의 수록 비율이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3 자료의 최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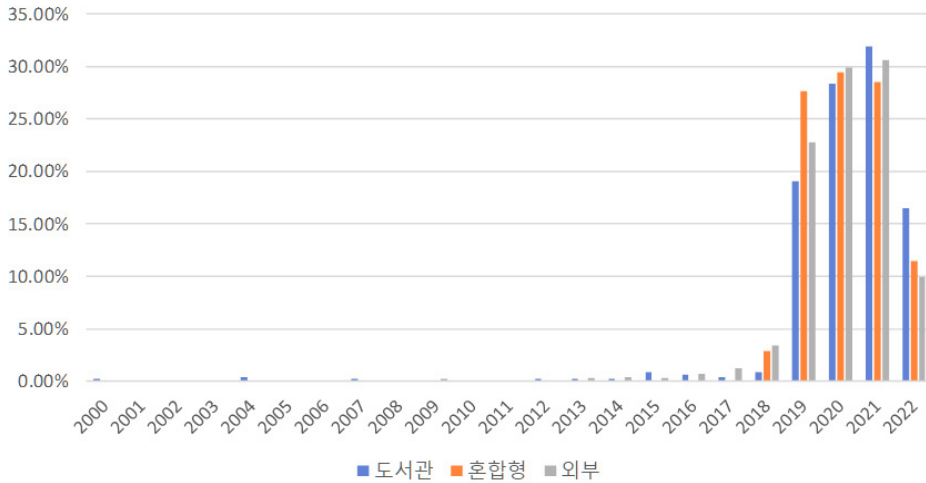
자료의 최신성은 추천도서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출판연도를 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기관(도서관+도서관 이외)의 추천도서 목록이 신간을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었다(〈그림 3〉 참조).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 범위인 2020년~2022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9년 이후 발간된 도서가 각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도서관이 95.77%, 혼합형이 97.13%, 외부가 93.10%이었다.

그러나 〈표 8〉을 보면, 도서관과 외부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에는 2017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도 수록되어 있다.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에서 출판연도가 가장 오래된 도서는 2000년 평민사에

서 출판된 「전습록」이었으며, 외부 기관에서는 2009년 사계절출판사의 「눈물바다」와 비룡소의 「파도야 놀자」였다. 외부 기관의 경우, 이 두 건의 도서를 포함하여 2017년 이전 출판된 도서를 추천한 기관은 교육계에 해당하는 책따세가 유일하였다. 즉, 교육계를 제외하면 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모두 신간도서만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4 물리적 특징

도서의 물리적 특징은 추천도서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ISBN 부가기호 중 제2행 발행형태 기호를 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ISBN 부가기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도서에 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책바다 서지데이터에서 보완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9〉와 같이 모든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에서 ‘단행본’ 도서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75.33%), ‘전집, 총서, 다권본, 시리즈’ 도서가 뒤를 이었다(18.70%). 외부 기관의 경우 ‘그



〈그림 3〉 기관별 추천도서의 출판연도 비율

〈표 8〉 기관별 추천도서의 출판연도

	도서관		혼합형		외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7년 이전	16	3.38%	0	0%	34	3.50%
2018	4	0.85%	35	2.87%	33	3.40%
2019	90	19.03%	337	27.65%	221	22.76%
2020	134	28.33%	359	29.45%	290	29.87%
2021	151	31.92%	348	28.55%	297	30.59%
2022	78	16.49%	140	11.48%	96	9.89%
계	473	100%	1,219	100%	971	100%

〈표 9〉 추천도서의 물리적 특징 분석 결과

	도서관		혼합형		외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문고본	0	0.00%	0	0.00%	0	0.00%	0	0.00%
사전	0	0.00%	0	0.00%	1	0.10%	1	0.04%
신서판	2	0.42%	4	0.33%	6	0.62%	12	0.45%
단행본	370	78.22%	967	79.33%	669	68.90%	2,006	75.33%
전집, 다권본	94	19.87%	202	16.57%	202	20.80%	498	18.70%
전자출판물	1	0.21%	0	0.00%	1	0.10%	2	0.08%
도감	0	0.00%	0	0.00%	0	0.00%	0	0.00%
그림책, 만화	6	1.27%	46	3.77%	92	9.47%	144	5.41%
혼합자료	0	0.00%	0	0.00%	0	0.00%	0	0.00%
계	473	100.00%	1,219	100.00%	971	100.00%	2,663	100.00%

립책, 만화'의 추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9.47%).

4.2.5 대상 독자층

도서의 대상 독자층은 추천도서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ISBN 부가기호 중 제1행 독자대상 기호를 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았다.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도서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63.00%), 그 다음으로 일반 '교양' 도서가 많았다(32.77%). 반면 혼합형의 추천도서 목록에는 도서관과 반대로 '교양' 도서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58.00%), 그 다음으로 '청소년' 도서가 많았다(38.23%). 외부 기관의 경우에는 '청소년(44.59%)' 도서와 '교양(41.71%)' 도서의 수록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아동' 도서를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많이 추천하고 있었다(13.49%).

4.3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 비교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을 목록의 형식, 발간 주기, 제공 서지정보로 나누어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목록의 형식은 책자로 발간되는 형식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내 게시글, 첨부파일 등의 형태로 별도의 검색 기능이 없는 '리스트형'과, 검색 창을 통해 추천도서를 서명, 저자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형'으로 구분하였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추천도서 목록은 모두 검색형에 해당하였다. 특히, A광역시립도서관의 경우 사서추천도서 선정에 참여하는 지역 내 16개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취합하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검색형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하는 기관은 책따세가 유일하였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연도별 추천도서 목록에 수록된 도서에 대하여 분야별, 상황별 추천도서 목록을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발간 주기를 비교하여 보면, 도서관은 매월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월별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 이외의 기관은 연 단위로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고 있었으며, 그중 행복한아침독서는 연 1회 발간하고 있었다. 발간 시기는 모두 학기를 기점으로 연 2회(상/하반기 또는 여름/겨울방학), 또는 새 학년이 시작하는 연초에 발간되고 있었다.

<표 10> 추천도서의 대상 독자층 분석 결과

	도서관		혼합형		외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교양	155	32.77%	707	58.00%	405	41.71%	1,267	47.58%
실용	7	1.48%	20	1.64%	1	0.10%	28	1.05%
청소년	298	63.00%	466	38.23%	433	44.59%	1,197	44.95%
학습참고서(중등)	0	0.00%	0	0.00%	0	0.00%	0	0.00%
학습참고서(초등)	0	0.00%	0	0.00%	0	0.00%	0	0.00%
아동	12	2.54%	22	1.80%	131	13.49%	165	6.20%
전문	1	0.21%	4	0.33%	1	0.10%	6	0.23%
계	473	100.00%	1,219	100.00%	971	100.00%	2,663	100.00%

〈표 11〉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

	형식	주기	제공 서지정보						
			주제 분야	서지 사항	독서 수준	주제어	추천글·작성자	타기관 추천 정보	
도서관	국어청	검색형	월1회	○	○	X	X	○	X
	A공공	검색형	월1회	X	○	X	X	○	X
혼합형	지널	리스트형	연2회	○	○	X	X	○	○
외부	책따세	검색형	연2회	○	○	○	○	○	X
	대출협	리스트형	연2회	○	○	X	X	X	X
	아침독서	리스트형	연1회	○	○	X	X	X	X

추천도서 목록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에는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의 서지사항에 주제 분야, 독서수준, 주제어, 추천글 등의 부가적 정보가 포함된다.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4개 기관에서는 추천 글 또는 비평 글과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주제 분야의 경우 A광역대표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혼합형과 도서관 이외 기관에서는 별도로 정의한 주제 분야에 따라 추천도서를 배열하여 주제별 도서목록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청소년 계층 아래 추가적인 구분은 없었으며 다만, 국어청의 경우에는 추천도서의 상세 정보에서 주제 분야(KDC 주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도서관 이외에 이용계층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행복한아침독서가 유일하였는데, 이용자 계층을 ‘어린이’, ‘청소년’,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는 도서관과 달리 행복한아침독서는 ‘중1-2’, ‘고2’ 등과 같이 학교급과 학년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제공 서지정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기관은 학교도서관지널과 책따세였다. 학교도서관지널은 다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과 차별되는 점으로 타 기관 추천정보, 교과연계도서

정보, 수상도서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책따세는 독서 수준과 주제어를 표시하고 있는데, 독서 수준은 ‘아주 쉬움’부터 ‘아주 어려움’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 책의 난이도에 따른 수준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에서 규정한 6가지 추천도서 선정 기준 항목(충실성, 가독성, 진술성, 대표성, 확장성, 복합성)에 근거하여 해당 추천도서에 매긴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추천 글 아래에는 해시태그 형태로 해당 도서의 주제어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이를 검색에 활용하고 있었다.

5. 결과에 대한 논의

5.1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강점과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상호 비교했을 때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었다. 첫째, 성문화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 이외의 기관들과 차별되는 점으로 ‘저자의 권위 및 균형’, ‘출판사의 성격 및 균형’이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출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출판사의 도서를 추천하고 있었다. 특히, 영세이거나 청소년 도서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 및 지역 출판사의 도서 수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꼭 신간만이 아니라 비교적 오래된 자료도 추천하고 있어서 보다 다양한 도서를 소개하고 있었다. 넷째,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도서의 검색이 가능한 검색형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많은 도서가 수록되는 도서관 이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과 달리, 매월 추천도서를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신성과 누적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한편, 이 연구를 통해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이 갖는 한계도 몇 가지 발견되었다. 먼저 추천도서의 선정 과정과 관련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 기준으로써 다소 추상적이고 의미가 모호한 문구나 그 평가치를 측정하기 부적합한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인문도서를 위주로 선정한다'라는 규정은 과학·기술, 특히 IT 분야의 도서가 제외되는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었으며, '삶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변화 발전적인 내용'과 같은 모호한 문구들도 있었다. 추천도서 목록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어나 범위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추천도서의 선정 주체가 모두 내부 사서직으로만 구성되고 있었다. 물론 책의 전문가로서 사서가 직접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도서를 선별하

고 소개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서가 모든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순환 업무로 인해 추천도서의 선정 업무를 사서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며,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리기 어려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서관에서는 사서 1인이 추천도서 선정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주제별 다양성을 고려하며 추천도서를 선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셋째, 선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특히 청소년의 요구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 부재하였다.

다음으로 추천된 도서의 특징 분석 결과로도출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주제 분야의 도서를 추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학' 분야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몇몇 특정 출판사의 편중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주제 분야 및 출판사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단행본 위주의 도서를 추천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림책·만화의 추천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보라(201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책의 종류와 갈래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흥미를 위한 독서와 학습을 위한 독서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독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와 즐거움을 위한 책을 찾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여, 그림책·만화 등도 다양하게 추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 발간 주체(출판사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 독자층으로 설정한 도서들이 주로 추천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애주기 상 아동에서 성인으

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인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독서 수준과 관심사를 가진다. 따라서 어린이 도서와 일반 성인을 위한 교양 도서 모두를 읽을 수 있다는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에서 나타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계층별로만 추천도서 목록을 구성하고 있어서 탐색의 용이성에서 한계가 있었다. 매월 추천하는 도서가 누적되면 방대한 목록이 쌓이게 되므로 세부적인 탐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기능은 이용자 계층별, 추천한 도서관별, 추천 연도 및 월별 필터링과 서명, 저자명, 추천 글의 내용에 대한 키워드 검색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서관은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추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서 추천은 수많은 도서 중에서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 특별히 추천한다는 점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해당 도서에 대해 사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추천도서 목록에 반영되도록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조직하여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둘째, 서지정보에서 추천도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약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주제 분야의 경우,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에서는 도서의 주제 분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어청의 경우에는 상세 서지정보에서 KDC 주류를 표기하고 있었으나, 사례로 살펴본 A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주제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5.2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개선을 위한 제언

이 절에서는 앞서 ①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② 추천된 도서의 특징, ③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된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한계 중에서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과 관련하여 개선을 위한 제언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도서관 이외 기관의 비교 사례 중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선정 기준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사례 중 학교도서관저널과 책따세를 참고해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저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분한 '문학', '인문·사회', '자연·과학·환경·생태', '예술·문화·체육·기타'의 주제별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학교도서관저널, 2012). 그리고 1차 분과 논의에서 이러한 세부 규정을 적용하여 각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서의 내용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2차 전체 논의에서 사서, 사서교사, 교사 등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정성적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책따세의 경우에는 '충실성', '가독성', '진솔성', '대표성', '확장성', '복합성', '균형성'이라는 7개의 기준을 설정하여 도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추천도서의 선정 범위를 교사와 학생들이 추천한 도서로 하며, 1차 심의를 거친 도서들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읽히고 그 반응을 살펴 최종 심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최종 심의에서 2~30인의 현장 교사들로 이루어진 운영진 전체의 만장일치를 받은 책만을 최종 추천도서

로 선정하고 있다(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2006).

도서관도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사서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추천도서 목록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주제 및 내용별 세부 기준은 물론, 선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추천도서에 대한 자문 및 검토의 주체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의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마련하되, 지역 내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자 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단위 도서관에서 어떻게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지침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인 청소년의 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조사가 추천도서의 선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이 이용자의 자료 선택을 지원하고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 측면에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사례 중 학교도서관저널과 책따세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책따세는 도서관 이외 기관에서 검색형 목록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었는데, 연도별로 선정된 추천도서 목록을 분야별, 상황별 목록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하기도 하고, 연령(중학생/고등학생/일반·교사) 및 주제별로 브라우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다. 추천도서의 서지

정보에서도 해당 도서를 추천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들, 독서수준, 주제어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저널의 추천도서 목록 역시 타 기관 추천정보, 교과연계정보, 수상정보 등의 부가적인 내용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들은 읽을 책을 찾는 청소년들은 물론, 이들을 지도 및 지원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도 탐색을 위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서지정보를 통해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를 추천하는지, 그 추천 의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도서관은 물리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소장 장서를 기반으로 도서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이외 기관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관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 번째 논의는 도서관 서비스에서 추천도서 목록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다. 이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A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서비스에서 추천도서 목록의 활용 현황이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천도서 목록을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극히 일부 도서관만이 추천도서 목록을 전시 서가의 구성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⁴⁾ 이는 추천도서 목록의 홍보 및 활용에 대한 지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천도서의 선정에 관한 지침에 더하여 추천 이후 관리와 활용, 서비스에 관한

4) 사서추천도서 선정에 참여하는 A지역의 공공도서관 16개관 중 1개관에서만 연1회 추천도서 목록을 '사서추천도서' 북 큐레이션 서가 구성에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침에는 추천도서에 대한 이용자 데이터의 축적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리뷰나 평가와 같은 이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는 독자들이 자료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이자 독자 커뮤니티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Dali, 2015; Pecoskie, Spiteri, & Tarulli, 2014).

두 번째 논의는 추천도서 목록과 도서관목록의 연계에 관한 내용이다. 도서관의 추천도서는 도서관 장서를 기반으로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목록과 추천도서 목록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추천도서 목록과 도서관목록을 연계하는 것은 도서관의 추천 데이터를 도서관 데이터에 축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추천도서가 이용자 대출이나 독서 활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며, 나아가 도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이차적 탐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이연옥, 2023). 또한 현재와 같이 도서관목록과 별도로 존재하는 추천도서 목록의 작성을 위해 서지사항을 중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서들의 업무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목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데, 도서관의 추천정보가 도서관목록에 누적되어 하나의 보강 콘텐츠(enriched content)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수상, 2023; Yang & Wagner, 2010). 이를 위해서는 다면적 서지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도서관목록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다면, 현재의 추천정보 및 이용정보 등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겨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 연구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추천 대상의 범위를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추천된 도서의 특징,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의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였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성문화된 선정 기준을 통해 자료의 다양한 측면은 물론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추천도서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영세 출판사, 청소년 도서 전문 출판사, 지역 출판사 등 출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서를 추천하고 있다. 셋째, 신착도서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과거에 출판된 자료를 추천하기도 한다. 넷째, 연간 단위로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는 다른 기관과 달리 월별로 도서를 추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섯째, 매월 누적되는 추천도서 목록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이 갖는 몇 가지 한계점도 발견되었는데, ① 추천도서의 선정 과정에서 첫째, 선정 기준으로써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들이 사용되고 있었고, 둘째, 선정 주체가 모두 내부 사서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주제별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며 추천도서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셋째, 선정 과정의 단계별 세부 규정 및 청소년의 요구 파악과 반영에 관한 지침이 부재하였다. ② 추천된 도서의 특징 분석 결과, 첫째, '문학' 분야의 편중과 둘째,

몇몇 특정 출판사의 편중이 나타났다. 셋째, 단행본 위주의 도서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림책과 만화의 추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대상 독자층이 ‘청소년’으로 설정된 도서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 방식의 측면에서는 첫째, 누적된 추천도서 목록에 대하여 이용자 계층별, 추천 연도/월별 필터링, 제목/저자명 키워드 검색 외에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서 접근점의 제공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둘째, 추천도서의 서지정보에서 주제 분야, 독서 수준, 주제어 등의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 관하여 이 연구에서는 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특히 이용자인 청소년의 요구 파악 및 선정 과정에서의 반영 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 ② 주제 분야 및 출판사별 추천 비중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③ 매월 누적되어 방대해진 추천도서 목록 내에서 도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 및 추천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도

서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풍부히 담고 있는 서지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 물리적인 공간과 소장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서 추천도서 목록의 활용 및 홍보 방안과 이차적 탐색 지원 및 도서관목록을 강화하기 위한 도서관목록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는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로써 비교 집단의 선정에 있어 6개 기관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는 다양한 기관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추가된다면 추천도서 목록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제공자의 관점에서만 분석하였다. 따라서 실제 추천도서 목록이 어떻게 활용되고 이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천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추천도서 목록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다솜, 윤유라 (2022). 지역대표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 21, 13(6), 463-476.
- 김경옥 (2020). 공공도서관 도서추천제의 비판적 분석: 부산광역시립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 김근호 (2011).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의 비판적 검토. *독서연구*, 26, 265-302.
- 김민아 (2022). 도서관의 도서추천서비스에 대한 유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시내, 현은자 (2003). 권장도서의 선정 현황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4(2), 17-53.
- 김주희 (2018). 초등학교 도서관의 권장도서목록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남영준 (2021). 사서추천제도와 베스트셀러 목록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3), 311-334.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311>
- 대한출판문화협회 (1987). *大韓出版文化協會 40年史*. 서울: 大韓出版文化協會.
-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大韓出版文化協會 50年史: 1947~1997*. 서울: 大韓出版文化協會.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류보라 (2013). 청소년 독자의 독서 경험 특성 연구. *새국어교육*, 94, 109-131. <http://doi.org/10.15734/koed..94.201303.109>
- 박정순 (2013). 공공도서관에서의 권장도서목록. *디지털도서관*, 72, 34-42.
- 안인자 (2009). 국내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개발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31-49.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4.031>
- 안찬수 (2005). 책읽기, 권장도서, 도서관 그리고 공공성. *창비어린이*, 3(4), 130-143.
- 우수출판물 선정. (1968.8.16.). *동아일보*, 3, 출처: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 이수상, 이태석, 주소현 (2022). 국내 공공도서관 온라인 북큐레이션 서비스의 내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189-209. <https://doi.org/10.16981/kliss.53.4.202212.189>
- 이수상. (202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통합검색 서비스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통합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40(3), 1-23. <https://doi.org/10.3743/KOSIM.2023.40.3.001>
- 이연옥 (2006).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권장도서목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47-72.
- 이연옥 (2023).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독자상담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2), 155-178. <https://doi.org/10.16981/kliss.54.2.202306.155>
- 이윤석 (2021). 청소년 추천도서의 서지적 특징. *사회과학연구*, 14(2), 141-164.
- 이현진 (2015).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교사 인식과 선정 실태 연구: 초등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목록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5, 195-227. <https://doi.org/10.17095/JRR.2015.35.7>
- 정오현 (2012). 고등학생용 권장도서목록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 조정연 (2021). 초등학생을 위한 권장도서의 학교 간 유사도와 효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2006). *책파세와 함께하는 독서교육*. 서울: 청어람미디어.
- 최성일 (2003). 어린이 추천도서, 어떻게 볼 것인가. *창비어린이*, 1(2), 192-205.
-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책 선정 원칙. (2012.04). *학교도서관저널*, 160-16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0). 간행물윤리 30년.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행복한 아침독서 [발행년불명]. 아침독서운동이란. 아침독서운동과 4원칙.

출처: <http://www.morningreading.org/whatmrch/>

Dali, K. (2015). Readers' advisory: can we take it to the next level?, *Library Review*, 64(4-5), 372-392. <https://doi.org/10.1108/LR-03-2015-0032>

Monroe, M. E. (1971). Reading guidance as a basic library service. In *Reading guidance and bibliotherapy in public, hospital, and institution libraries: a selection of papers presented at a series of adult services institutes, 1965-1968*. Madison: Library School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1-11.

Pecoskie, J., Tarulli, L., & Spiteri, L. F. (2014). OPACs, users, and readers' advisory: exploring the implication of user-generated content for readers' advisory in Canadian public librar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2(4), 431-453. <https://doi.org/10.1080/01639374.2014.891166>

Yang, S. Q. & Wagner, K. (2010). Evaluating and comparing discovery tools: how close are we towards next generation catalog?, *Library Hi Tech*, 28(4), 690-709. <https://doi.org/10.1108/0737883101109631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hn, Chan Su (2005). Reading, recommendations, libraries, and publicness. *Changbi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3(4), 130-143.

Ahn, In-ja (2009). A study on the trends of developing children' suggested reading lis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31-49.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4.031>

Chaegeuottadeushansesangmandeuneungyosadeul (2006). *Reading Education with Chaekttase*. Seoul: Cheongoram Media.

Cho, Jeong-yeon (2021). *A Study on the Similarity among Schools and Effectiveness of Book Recommendatio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yong-gi University.

Choi, Seong-il (2003). Children's book recommendations, how to view them. *Changbi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1(2), 192-205.

Go, Dasom & Youn, You-Ra (2022). Current status and tasks of recommended book lists of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6),

463-476.

- Jung, Oh Hyun (2012). A Critical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High School Reading Lists.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Kim, Joohee (2018). A Study on the Use of the Recommended Book List for Elementary School Libraries.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Kim, Keun-ho (2011). A critical study on selecting the recommended books for adolesc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6, 265-302.
- Kim, Kyung-Ok (2020). A Critical Analysis of the Public Library Book Recommendation System.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Kim, Min-ah (2022). A Study on the Types of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in the Library. Master's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Si Nae & Hyun, Eun Ja (2003). An analysis of the selection of recommended book lists in south korea.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4(2), 17-53.
-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ttee (2000). 30 Years of Publication Ethics. Seoul: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ttee.
- Korean Publishing Culture Association (1987). 40 Years of Korean Publishing Culture Association. Seoul: Korean Publishing Culture Association.
- Korean Publishing Culture Association (1998). 50 Years of Korean Publishing Culture Association: 1947~1997. Seoul: Korean Publishing Culture Association.
- Lee, Hyunjin (2015). A study of teachers' perceptions and realities of selection on the recommended book lists: focused on the lists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5, 195-227. <https://doi.org/10.17095/JRR.2015.35.7>
- Lee, Soosang (202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search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grated librar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of seoul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3), 1-23. <https://doi.org/10.3743/KOSIM.2023.40.3.001>
- Lee, Soosang, Lee, Tae-seok, & Joo, So Hyun (2022). Content analysis of online book curation services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4), 189-209. <https://doi.org/10.16981/kliss.53.4.202212.189>
- Lee, Yeon Ok (2006).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selection tools for children's and young adults' bookgh the recommended book lis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47-72.
- Lee, Yeon Ok (2023). An analysis of online readers' advisory services offered by public libraries.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2), 155-178.
<https://doi.org/10.16981/kliss.54.2.202306.155>
- Lee, Yoon-suk (2021). A study on bibliographic characteristic of recommended books for youth. Journal of Social Sciences, 14(2), 141-164.
- Library Act. Law No. 19592.
- Nam, Young Joon (2021).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librarian recommendation system and bestseller lis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3), 311-334.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311>
- Park, Jeong Soon (2013). Recommended book list in the public library. Digital Library, 72, 34-42.
- Ryu, Bo-ra (201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 readers' reading experience. Korean Education, 94, 109-131. <https://doi.org/10.15734/koed..94.201303.109>
- School Library Journal's Book Recommendation Committee Principles for Selecting Children and Youth Books. (2012.04). School Library Journal, 160-161.
- Selected outstanding publications. (1968, August 16). Dong-A Ilbo, 3,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